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이후 보도 가능** 배포 : 2023년 4월 25일(화)

## 윤석열 대통령 “청정수소, 반도체 등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로 미래를 함께 준비”

- 美 첨단기업 6개 사로부터 19억 달러 투자 유치,  
이들 만에 44억 달러 투자 유치하며 세일즈외교 성과 창출 -
- 우리 경제사절단, 퀄컴·보잉·IBM·GM·GE·테슬라 등 美 주요 기업인들과  
투자,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협력 논의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월 25일(화) 워싱턴 D.C.에서 우리 경제사절단과 함께 美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며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 < 투자신고식 : 6개 사 19억 달러 투자 유치 >

어제(4,24) 넷플릭스 CEO와 접견하며 K-콘텐츠에 대한 25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낸 대통령은 오늘 투자신고식에 참석하여 美 첨단기업 6개 사로부터 총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들 만에 총 4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세일즈외교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6개 사 CEO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표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6개 사는 앞으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국내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어 프로덕츠 사도 오늘 투자신고식에 참석했습니다.

### < 투자신고식 참석 기업 현황 >

분야	기업명	분야
수소	Air Products	수소 생산시설
	Plug Power	수소 분해, 연료전지 생산시설, R&D센터
반도체	On Semiconductor	전력반도체 생산시설
	Greene Tweed	반도체 장비부품 생산시설
친환경	PureCycle Technologies	페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
	EMP Belstar	친환경 초저온 물류시설

###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AI·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주요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측 참석 기업은 분야별로 ❶반도체, IT, AI 분야를 대표하는 퀄컴, 램리서치, 온 세미콘덕터, 코닝,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❷청정에너지, 전기차 분야에서는 GE, 테라파워, GM, 테슬라 등이, ❸방산·항공 분야에서는 보잉과 록히드 마틴이, ❹바이오 분야에서는 모더나와 바이오젠 CEO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다보스 글로벌 CEO 오찬에서도 대통령과 만났던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NEC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미 FTA의 강력한

옹호자인 게리 콘 IBM 부회장, 올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테슬라의 칸 부디라지 공급망 총괄부사장, 모더나 창업자이자 코로나 당시 우리나라로 백신 지원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누바르 아페얀 모더나 이사회회장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들 기업과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한진, 효성, 풍산, 한국항공우주 등 주요 그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지나 리몬도 美 상무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함께 참석하여 기업들 간의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전경련과 美 상의가 양측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청기업을 선정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준비됐으며, 양국의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참석을 희망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개최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군사·안보부터 공급망·첨단과학기술 분야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에는 양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가 있다  
면서, 앞으로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70년을 준비  
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기업은 각각 상대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국은 핵심, 원천기술 강국이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호 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며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 강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AI 및 양자 등 신기술에 대한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함미 첨단산업 포럼 : 함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 >

한편 대통령은 이어진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들 간 산업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인력·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측 기업인 1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온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 경제인 덕분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첨단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명실상부한 첨단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그간 한·미 양국이 G2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급속하게 발전한 경험을 살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도 강화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최한 김병준 전경련 회장대행은 환영사에서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관점에서 더 큰 리더십을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수잔 클락 미 상의회장은 신흥 첨단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미 양국 경제계가 합심하여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잇따라 열린 경제인 행사를 통해 대통령은 첨단 기술동맹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은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산업부는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상무부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해 에너지부와 각각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며, 오늘(4.25) 오후 산업부가 주최하는 「한미 산업·에너지 MOU 체결식」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12건의 MOU가, 청정수소·SMR 등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11건의 MOU 등 총 23건의 MOU가 체결되는 것을 시작으로 순방 기간 동안 총 수십 건의 기업, 기관 간 협력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참고 1

투자신고식 참석 기업 및 투자 내용

분야	기업명	참석자	투자내용
수소	Air Products	Wilbur W. Mok (윌버 목) President As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그린암모니아-그린수소 터미널 및 크래킹 생산시설</li> <li>○ (의의) 청정수소 상용화 및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기여</li> </ul>
	Plug Power	George McNamee (조지 맥나미) Chair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수소기술 R&amp;D센터 및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li> <li>○ (의의) 수소 핵심기술 개발 가속화, 청정수소 공급망 강화</li> </ul>
반도체	On Semiconductor	Daryl Hatano (데릴 하타노) Vice Presid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SiC 전력용 반도체 생산시설</li> <li>○ (의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 전기차 공급망 안정화 기여</li> </ul>
	Greene Tweed	Allon Bloch (알론 블락) Chair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반도체 장비 씰링(Sealing)용 오링(O-Ring) 생산시설</li> <li>○ (의의) 반도체 산업 핵심 소부장 공급망 협력 강화</li> </ul>
탄소 중립	PureCycle Technologies	Dustin Olson (더스틴 올슨) C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폐플라스틱 재활용 폴리프로필렌(PP) 생산시설</li> <li>○ (의의) 아시아 최초 화학적 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li> </ul>
	EMP Belstar	Daniel Yun (대니얼 윤) Chairm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 LNG 기화시 발생한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물류센터</li> <li>○ (의의) 국내 초저온 물류망 확대 및 탄소배출 저감</li> </ul>

참고 2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기업 현황

○ 우리측 11명

연번	기업·기관명	참석자	비고
1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2	SK그룹	최태원 회장	
3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4	LG그룹	구광모 회장	
5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6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7	풍산	류진 회장	중견기업/한미재계위
8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9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10	한국항공우주산업	강구영 회장	중견기업
11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병준 회장대행	경제단체

○ 미국측 22명

연번	기업·기관명	참석자	비고
1	보잉	David Calhoun/CEO	
2	퀄컴	Cristiano Amon/CEO	
3	램리서치	Timothy Archer/CEO	
4	코닝	Wendell Weeks/CEO	
5	테라파워	Chris Levesque/CEO	
6	모더나 플레그쉽	Noubar Afeyan/CEO	
7	GE Vernova	Scott Strazik/CEO	
8	마이크로소프트	Brad Smith/Vice Chair	
9	IBM	Gary Cohn/Vice Chair	
10	록히드마틴 에어로노틱스	O.J. Sanchez/Vice President	
11	GM	Shilpan Amin/President	
12	테슬라	Karn Budhiraj/VP	
13	바이오젠	Christopher Viehbacher/CEO	
14	구글	Hiroshi Lockheimer/SVP	
15	온세미컨덕터	Daryl Hatano/VP	투자기업
16	그린트워드	Allon Bloch/Chairman	투자기업
17	에어프러덕츠	Wilbur W. Mok/President Asia	투자기업
18	플러그파워	George McNamee/Chairman	투자기업
19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	Dustin Olson/CEO	투자기업
20	이엠펙셀스타	Daniel Yun/CEO	투자기업
21	미국상공회의소	Suzanne Clark 회장	경제단체
22	미한재계위원회	Octavio Simoes 회장	사회



참고 3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미국 측 참석자 프로필

사진	성명	현직	주요 학경력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 / 세계 3위 방산기업 ■ 美 버지니아테크 회계학 학사 ■ GE인프라 대표이사 ■ 닐슨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이사	※ 세계 1위 스마트폰 AP / 다보스 글로벌 CEO 오찬(1.18) 참석 ■ 브라질 캄파나스주립대 전기공학 학사 ■ 브라질 베스퍼 최고재무책임자(CFO) ■ 퀄컴 반도체 사업 책임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대표이사	※ 세계 3위 반도체 장비기업 / 용인시에 R&D센터 개소('22.4) ■ 美 하버드 경영대 관리개발 석사 ■ 노벨러스시스템즈 최고운영책임자(COO) ■ 램리서치 최고운영책임자(COO)
	웬델 윅스	코닝 대표이사	※ 글로벌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 美 하버드 경영대학 MBA ■ 코닝 광섬유사업부 부사장 ■ 現 아마존 이사회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대표이사	※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 美 MIT 기계공학 석사 ■ 웨스팅하우스 부사장 ■ 現 美원자력규제위원회 이사
	누바르 아페얀	모더나 이사회 의장	※ 모더나 창업자, 코로나 백신 한국 지원에 역할 ■ 美 MIT 생화학 박사 ■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 창립자 ■ 모더나 공동 창립자



사진	성명	현직	주요 학경력
	스캇 스트라직	GE베르노바 대표이사	※ GE의 에너지 부문 CEO ■ 美 컬럼비아대 국제관계대학원 ■ GE 가스파워 대표이사 ■ GE 애비에이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 소프트 부회장	※ 법률 전문가로 AI 윤리, 규제 등에 관심 ■ 美 컬럼비아대 법학박사 ■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 넷플릭스 이사회
	게리 콘	IBM 부회장	※ 한미FTA의 강력한 옹호자 ■ 美 아메리칸대 경영학 학사 ■ 골드만삭스 최고운영책임자(COO) ■ 백악관 NEC 위원장
	올랜도 산체스	록히드마틴 에어로노틱스 부사장	※ 세계 1위 방산기업 / KAI와 협력 ■ 록히드 F-22 전투기 사업 부사장 ■ 미 국방부 합참 작전참모부 부국장 ■ 미 공군 325 전투대대 부단장
	실판 아민	GM 인터내셔널 사장	※ 세계 4위 자동차기업 / 한국GM에서 소형 SUV 생산·수출 ■ 美 서던캘리포니아 경영대학 MBA ■ GM 글로벌구매공급 부사장 ■ 現 Pure Watercraft 이사회
	칸 부디라지	테슬라 부사장	※ 테슬라 공급망 총괄 / 올해 한국 부품 100억불 이상 구매 약속(머스크 CEO) ■ 美 MIT 공학 석사 ■ 애플 전략조달매니저 ■ 엑슨모빌 조달담당

사진	성명	현직	주요 학경력
	크리스토퍼 비에바허	바이오젠 대표이사	※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 캐나다 퀸즈대 경영학 석사 ■ Gurnet Point 캐피털 공동창립자 ■ 사노피 대표이사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수석부사장	※ 안드로이드, 크롬 등 총괄 ■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매니저 ■ 굿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니저 ■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
	테릴 하타노	온세미 컨덕터 부회장	※ 전력반도체 (투자기업) ■ 美 UC 버클리 경영대학 MBA ■ 美 UC 데이비스 법학박사 ■ 美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알론 블락	그린 트위드 회장	※ 반도체 장비부품 (투자기업) ■ 美 터프츠대 경제학 학사 ■ 美 보스턴대 경영대학 MBA ■ Lancer 시스템즈 회장
	윌버 목	에어 프로덕츠 아시아 사장	※ 수소 등 산업용 가스 (투자기업) ■ 美 노스웨스턴대 전기공학 학사 ■ 美 시카고대 MBA ■ 에어프로덕츠 북미 가스부문 부사장
	조지 맥나미	플러그 파워 회장	※ 수소, 연료전지 (투자기업) ■ 美 예일대 문학학사 ■ Amberwave 회장 ■ FA테크놀로지 벤처 관리 파트너

사진	성명	현직	주요 학경력
	더스틴 올슨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폐플라스틱 재활용 (투자기업) ■ 美 라이스대 경영대학 MBA ■ Lyondell케미칼 전략분석연구원 ■ 퓨어사이클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MO)
	대니얼 윤	EMP 벨스터 대표이사	※ 친환경 물류 (투자기업) ■ 美 육군사관학교 응용과학 학사 ■ Belstar 공동설립자 ■ 리만브라더스 부사장
	수잔 클락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 미 상의 역사상 최초 여성 회장 ■ 美 조지타운 경영대학 MBA ■ Atlantic Media 회장 ■ AGCO Corporation 디렉터
	옥타비오 시모에스	텔루리안 대표이사	※ LNG 개발기업 ■ 美 조지아공과대학 기계공학 석사 ■ 샘프라 LNG&미드스트림 대표이사 ■ 現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 美 예일대 법학박사 ■ Point Judith 벤처캐피털 창립 ■ 로드아일랜드 주지사